

은유와 두려움

Meekness & Fear

베드로전서 3:15-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7월 22일 설교

¹⁵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은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¹⁶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두타스님 굴욕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에 보신 분도 있지요? 사진 제목이 “두타스님 굴욕사진”입니다. 꼭 다섯 해 전 칠월에 처음 인터넷에 실려 유명해지자 종이 신문도 앞 다투어 실었던 사진입니다. 장소는 부산 서면 지하상가인데 시주함 앞에 앉아있는 불교 스님의 뺨뺨 깎은 머리를 십자가를 든 한 전도자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전도자가 스님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고 그래서 스님이 굴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두타스님은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급식센터인 민들레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밥퍼>의 주인공 최일도 목사가 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하루에 이백 명이나 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해 주기 위해 대도시 지하상가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칭찬은 못 해드릴망정 저렇게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으면서 모욕감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들었으니까 기독교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소중하면 불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 때가 마침 아프간 피랍사건이 났을 때였습니다. 샘물교회 봉사 팀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납치되어 두 사람이 죽고 나머지 열아홉 명은 한 달 넘게 잡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고 또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를 시비해 온 나라가 교회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떴으니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지요.

언론이 앞 다투어 두타스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도자는 몇 달 전부터 지하상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사람인데 그 전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탁발을 하는 불교 승려 주변을 돌면서 복음성가를 크게 불렀다고 하니 시비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전도자가 행인들에게 좀 얻어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한다고 다음날 두타스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두타스님은 두 사람이 전생에 있었던 악연을 지금 풀고 있다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전도자한테 미안하다 했습니다. 민들레밥집이 두 곳인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반이 기독교인이니까 밥집을 하나씩 나누어 운영하자고 그 전도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 하는 말도 했습니다.

전도자의 굴욕

그런데 며칠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두타스님을 조사해 방송을 했는데 탁발하던 고상한 모습 뒤에 아주 추악한 면이 숨어 있더라 했습니다. 보통 스님은 독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은 동거녀가 있다 했습니다. 게다가 사진이나 인터뷰에는 자비롭고 온순하게 나오는 이 분이 동거녀나 주위 사람들한테 폭력을 자주 쓴다 했습니다. 동거녀한테는 부엌칼을 던지기도 했더니 보통이 넘지요. 또 탁발을 해 모은 돈을 다 민들레밥집에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용도로도 썼는데 심지어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까지 출입했다 합니다. 결정적인 건 뭐였겠습니까? 알고 보니 승려도 아니더라 했습니다.

인터넷이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두타스님을 옹호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기가 죽고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던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그 방송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프간 피랍사건 때문에 아직 기독교를 대놓고 옹호할 분위기는 아니니까 대신 두타스님을 세계 비판했습니다. 땡중이다, 사이비 스님이다, 하면서 처음 전도자를 비판한 글 이상으로 두타스님을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타스님 굴욕사진이 굴욕이 아니라 그 사진 때문에 실체가 밝혀져 결국 굴욕을 당한 셈이지요.

그런데 사진에서 정말 굴욕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진 제목은 일단 “두타스님 굴욕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서 전도자 얼굴이 지워져 있습니다. 왜 지웠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에도 얼

굴을 지우지만 이 경우에는 뒤통까지 못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얼굴을 지웠습니다. 정작 굴욕을 당하고 있는 두타스님은 부끄러울 게 없으니 얼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건 두타스님을 내려누르고 있는 이 전도자입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일은 예의를 갖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저항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머리를 그렇게 내리누르는 건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이게 굴욕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는, 앉아 있는 두타스님은 잘못이 없고 손으로 다른 사람 머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이 전도자가 백 번 잘못했습니다. 앞뒤 상황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꾼들이 이 전도자를 비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봐도 잘못인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더 그렇겠지요.

우리의 믿음

비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종교도 존중해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립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불신자들의 비판 가운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지요. 예, 전도하지 마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상대가 스님이든,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무신론자든, 우리는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건 진리고 다른 사람이 믿는 건 다 엉터리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는 무시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두타스님 머리를 내리누르듯 마구 짓밟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진리나 거짓이냐 하는 영적 차원도 있지만 사회 현상의 차원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리든 거짓이든 어떤 대상을 하나 골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체계와 현상을 보여줍니다. 교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수련도 하고 필요하면 땅이랑 건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에 바탕을 둔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내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의 차원에서는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바로 알고 있지만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하고 똑같은 인권을 가졌고 나하고 똑같은 시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 관계마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다른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야, 너희들 다 엉터리야!” 하고 욕박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종교를 농담거리로 삼지도 않습니다. 엉터리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농담거리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기본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다른 예절도 많습니다. 사람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춘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이른바 진리라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 오히려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사람 많지요. 아무리 맞아도, 그래서 부자관계가 끊어져도, 내가 그 사람을 남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나가 절에 다닌다고 무시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반말을 해도 됩니까? 내가 믿는 게 진리라고 처음 보는 사람 불러 놓고 타이르듯이 꾸중하듯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기 이전에 사람의 예절도 못 갖춘 겁니다. 물론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땅바닥에 앉아 있는 스님 머리를 손으로 주물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진은 전도자의 굴욕이고 그 굴욕의 열매는 그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전에 어느 교회 청년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몰래 찬송가를 부르고는 마치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낸 것처럼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교사원에서도 찬송가 부를 수 있겠지요. 기도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라리 크게 부르고 혼이 나든가 몰래 했으면 끝까지 숨기지 몰래 해 놓고 그걸 공개해서 마치 이슬람을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건 인간 내

가 인간 이슬람교인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잘 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온 우주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적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현상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놀러 가서 단체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불교는 거짓이고 우리는 진리니까 괜찮다 합니다. 스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탁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교는 거짓이니까 안 돼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지요. 법에 따라 절을 짓겠다 하는데 주변 교회가 모여서 “사찰 건립 결사반대” 그런 현수막 내걸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돈이 관련된 문제, 권력이 관련된 문제, 편의가 달린 문제, 그런 거라면 우리가 더 양보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동은 말자

현실에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존중해 주고 어떤 점에서 거짓임을 말해주어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실수도 합니다.

전에 조용기 목사가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강연을 하러 가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 박수를 받았습시다. 이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를 불렀습시다. 목사인 줄 알고 불렀습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나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믿는다, 저는 여러분이 다 저처럼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거기 모인 수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 놓고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자기 교회에 가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습시다. 이것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조 목사의 거짓말을 듣고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게다가 불교신자들 앞에서는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해 놓고 나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면 불교신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왔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람의 기본 인격을 짓밟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말해야 될 자리에 가서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해 놓고 모두를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해야 할 자리에서는 불교라고 딱 무시해 버리는 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 아시지요? 유명한 부흥산데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다 합니다. 이 분이 강사로 오면 한참 웃다 보면 어느새 집회가 끝난답니다. 대단한 재주지요. 이 분이 그랬습시다. “내가 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조용기 목사가 못한 말이 이 분이 대신 했으니 잘 했습니까? 담긴 내용은 백번 맞습시다. 그런데 그걸 담은 그릇은 틀렸습시다. 사람으로서 예의를 못 갖추었습시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 똑같은지 진리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고 말을 조심해야 할 자리에서는 진리를 농담거리로 만들어 배나 잡고 있으니 한심하지요.

삶을 담아서

무례함보다 더 심각한 건 가벼움입니다. 농담 많이 한다고 가볍다는 것 아닙니다. 저도 농담 곧잘 합니다. 우스개에 삶만큼 깊은 무게가 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와!” 하고 웃을까요? 내용은 옳은데 그 옳은 내용을 전달하는 틀 속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태도, 진리를 못 찾고 방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는 태도가 담겼습시다. 강사도 비웃고 따라 웃는 교인들도 비웃습시다. 두타스님 머리를 내리누르는 그 전도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가르치셨습시다. 장 목사 이 분이 한 말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그것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목숨이 아니라 영원의 운명이 달린 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도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이것도 재ضح니까? 주여, 하고 가슴을 쳐도 시원찮을 이야기를 이렇게 웃고 즐길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렸습시다. 두타스님 굴욕 사진 때문에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경동이라는 사람 때문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조롱거리, 농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목사 하나쯤 있어도 된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인 김문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는 조용기 목사 흉내, 이상한 사투리 흉내로 유명해지더니 결국 복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복음이라 말하는 거기서는 주 예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믿음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불교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더니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 합디다. 속마음이 드러났지요? 김문훈 목사도 같은 반열입니다. 불신자들이 장 목사, 김 목사 설교를 듣고 천박하다고 놀려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듣고는 알고 열답니다.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온유와 두려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데 그 기본은 두 가지 마음가짐 곧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면서 그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가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방전도 좋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백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값진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 담겨 있습니까? “너희는 영터리아” 하면서 무시해 버리는 무례함은 거기 없습니까?

온유함과 함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가질 태도입니다. 이웃을 대하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대하실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황금률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그저 농담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농담처럼 취급하실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가볍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굴욕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같은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마음 깊이 불쌍하게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참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